

2016학년도 신입학 모집 관련 논술 모의평가 문제지 (인문계열)

※ 본 논술 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습니다.(문제해설 포함)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 상의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정색볼펜”으로 정확히 기재 및 마킹(진하게)바랍니다.
- 답안 작성란은 “검정색볼펜” 또는 “검정색 연필(샤프)”로 작성하십시오.
 ※ 검정색 이외(빨간색, 파란색 등) 사용 금지
 ※ 지우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밑줄 친 ‘윤리적 공백’ 현상을 제시문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제시문 (가)의 밑줄 친 책임 윤리의 필요성을 제시문 (다)와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과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적인 풍요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급속한 발달 과정에서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실천적 윤리적 숙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요나스 (Jonas, H.)는 과학 기술의 발달 및 경제적인 풍요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적인 숙고의 차이를 ‘윤리적 공백’으로 표현하면서 전통적인 윤리의 틀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요나스는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과학을 통해 부여받고, 경제를 통해 끊임 없는 충동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권력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학을 요청한다”라면서 “너의 행위의 영향이 지구상에 진정한 인간 삶의 지속과 조화되도록 행위하라”는 책임 윤리를 강조하였다. 복잡하고 익명적인 현대 사회속에서 공동 책임 내지 집단 책임은 무책임으로 함몰되기 쉽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과 다른 사람에 대해 지니는 책임 자체가 중요한 윤리적 문제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이 인간과 자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루는 윤리를 책임 윤리라 한다. 책임 윤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떤 행동이든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꺼이 책임을 져야 한다. 행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태도는 진정한 자유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책임 윤리는 함께 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자신의 책임 범위는 단지 자신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신에게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

(나)

어느 마을에 공동으로 소유하는 목초지가 있었다. 사람들은 여기에 적당한 수의 양 떼를 풀어 기르면서 큰 문제없이 먹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양을 더 많이 들여와 방목했다. 그의 수입이 늘자 다른 사람들도 양을 다뤄 양을 더 방목했다. 내가 안 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 양을 풀 것이기 때문이다. 목초지는 곧 황폐해졌고 주민들의 삶도 어려워졌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공동 목초지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가능한 많이 목초지에 있는 풀을 자신의 양에게 먹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풀이 자랄 겨를도 없이 목초지의 풀은 사라져가고, 결국은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 그 결과 아무도 양을 기를 수 없게 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해법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였다. 정부가 개입하여 목초지에 풀어 놓을 수 있는 양의 수를 제한하거나 목초지의 소유권을 나누어 목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연안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어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인도 일부 지방은 수자원 이용권을 기업에 넘기기도 한다.

(다)

자연의 구성원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한 구성원의 이기적인 지배 행위는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나친 이용과 개발은 생태계의 안정적 질서를 파괴할 것이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게 된다. 예를 들면 산업 문명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안겨 주었지만 그것은 자연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자연을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연 전체를 아우르는 확대된 도덕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위들이 자연 전체의 안정과 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반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태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생태계 전체의 안정과 조화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생태 공동체의 진가와 인간의 참된 능력을 깨달아 보다 좋은 세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생태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람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책임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와 자연 그 자체를 위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 세대와의 역사적 연대성을 토대로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도 현세대가 누리는 것만큼이나 생명력 있는 자연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 위기에 직면한 우리는 미래의 부정적 결과를 예견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라)

세계의 무역 구조는 점점 왜곡되어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한 무역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공정 무역이다. 공정 무역의 가장 큰 목적은 개발 도상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무역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 값에 제품을 살 수 있다. 공정 무역은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장 잘 알려진 공정 무역 제품은 커피, 바나나, 초콜릿이다. 스위스에서는 '공정 무역 바나나'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도 했다.

최근에는 '착한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정 무역으로 거래되는 커피 한 잔의 값이 5천원이면, 이 가운데 35원이 커피 재배 농가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일반 커피의 수익보다 2배쯤 높다. 이처럼 커피 소비자들의 관심이 공정한 무역으로 거래되는 커피,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유기농 커피, 열대 우림을 보호하며 그 곳에 사는 커피 재배 농민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열대 우림 동맹 인증 커피로 이어지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진 수제 축구공은 다른 제품보다 10%정도 비싸다. 그러나 원가를 아끼려고 어린이들을 동원해 만드는 일부 스포츠 용품 회사들과 달리 어른들만 고용해 만든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끈다. 소비자들이 점차 제품에 대한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 윤리적 관점을 소비의 준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가)에서 우리 삶의 질과 연관된 요소들을 분석한 후, 제시문 (나)의 사회 환경의 변화를 논거로 삼아,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에서 각각 강조하고 있는 삶의 질에 연관된 요소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삶의 질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된다. 경제적으로는 국내 총생산을 비롯한 1인당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사회 간접 자본, 생활 비용뿐만 아니라, 분배 관련 지표들도 관련된다. 정치·법적인 측면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기대 수명, 안전한 식생활, 영아 사망률, 국내 총생산 대비 공적 의료비 지출 비중 등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여가와 여유로운 생활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또한 삶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들과 인구밀도, 인구 성장률 등도 삶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삶의 질은 외형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내면적 심리 상태, 즉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도 포함한다. 따라서 안정감, 친밀감, 우정, 존경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 또한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다.

(나)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로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양적 지표에 따른다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가족들의 한 끼 식사를 걱정하던 시기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도시의 공장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많은 시간 근로를 할 수 있는가에 큰 관심을 두었다. 그 당시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 등의 기초적 생존을 위한 것에 우선적 가치를 두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근로와 식생활 등에 다른 관점의 가치들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 및 식생활 분야로 압축한다면, 과거 산업화 초기의 양태와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으로 많은 부분이 채워지면서 저임금으로 자신의 생계에 어려움도 많아지고 있는 한편, 장시간의 노동보다 자신의 개성과 취미를 영위할 시간을 갖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산업화 초기에 기본적인 식생활의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반면에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로 식생활에 보다 많은 비용 지불을 감수하고 먹거리의 생산자에 높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다)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러나 장미도 원한다.” 이 구호는 1908년, 미국 뉴욕 방직공장에서 남성에게 비해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던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서 나온 구호였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빵(생존권)이 강조되면서 장미(인권)는 빵을 위해 희생되어도 좋은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인 랭스턴 휴스는 “내일의 빵으로는 나는 살 수가 없다.”라며, 풍요로운 미래의 약속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오늘의 자유’를 선언하였다.

(라)

전라남도는 2003년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100% 친환경 농산물을 도내 모든 학교 2,430곳에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식습관이 개선되고 체력도 좋아졌으며, 농민들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특특히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면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국의 15개 시도가 2004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9년에는 1,416억 원에 달하는 지원 사업비가 책정되었다.

<끝>